

대구광역시

대구지역 전문대 수시 1차 경쟁률 소폭↓

계명문화대 3.4대 1 경쟁률 '치위생과' 259명 지원 최다 보건대, 대졸↑ 592명 지원 간호·물리치료 선호도 꾸준



계명문화대학 KEIMYUNG COLLEGE UNIVER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구지역 주요 전문대학 2025학년도 수시 1차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대부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지역 전문대학에 따르면 영남이공대학이 3일 마감한 2025학년도 수시 1차 원서접수 결과, 1832명 모집(정원내)에 1만506명이 지원해 평균 5.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 전문대학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대구보건대의 경우 1791명 모집(정원내) 9615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5.37대 1을 기록했다.

이 대학의 대졸이상 학력자 지원은 592명이 지원해 학력유턴 전국 대표 대학교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계명문화대는 정원내 1742명 모집에 5939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87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대구과학대는 정원내 1254명 모집에 4119명이 지원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 3.9대 1 보다 다소 낮았다.

영남이공대의 주요 학과별 전체 경쟁률은 물리치료과가 23.2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스포츠재활과 14.41대 1, 간호학과 13.33대 1, 반려동물보건과 9.68대 1, 치위생과 8.96대 1, 글로벌 베이커리과 8.46대 1, K-뷰티과 8대 1, 호텔·항공서비스전공 7대 1, 보건의료행정과 6.91대 1, 청소년복지상담과 6.81대 1 순이었다.

전원별로는 일반고전형이 9.67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성화고전형 7.27대 1, 면접전형 3.98대 1, 평생학습자전형 2.74대 1, 대학자 체전형 1.49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보건대의 전형별 학과 경쟁률을 살펴보면, 특성화고전형에서 물리치료과 10.3대 1, 간호학과 55.5대 1, 스포츠융합 기계계열 29.63대 1, 스포츠재활과 21.5대 1, 치위생과 12.3대 1, 박승철해어과 11.25대 1, K-뷰티과 11.2대 1, 반려동물보건과 10.63대 1, 호텔·항공서비스전공 10대 1을 기록했다.

일반고전형에서 K-뷰티과 24.6대 1, ICT 반도체전자계열 22.6대 1, 박승철해어과

22.6대 1, 물리치료과 18.83대 1, 스포츠재활과 18.63대 1, 호텔·항공서비스전공 15대 1, 글로벌베이커리과 12.36대 1, 간호학과 12.7대 1, 반려동물보건과 12.13대 1, 스마트융합기계계열 11.88대 1, 보건의료행정과 11.73대 1, 사회복지·교육과 10.14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과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정원 내 특성화고 전형에서 간호학과 81.3대 1, 물리치료학과(주간) 45.8대 1, 물리치료학과(야간) 12대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31대 1, 방사선학과(주간) 13.5대 1, 방사선학과(야간) 12.5대 1, 응급구조학과 12.3대 1, 스포츠재활학과 10.9대 1, 식품영양학과 10대 1, 유아교육학과 10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고전형에서는 응급구조학과 15.1대 1, 간호학과가 14.1대 1, 물리치료학과(주간) 13.6대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31대 1, 글로벌호텔조리학과 7.1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정원 외 대학졸업자 전형에서는 물리치료학과(야간) 29.5대 1, 물리치료학과(주간) 14.8대 1, 방사선학과(야간) 20대 1, 식품영양학과 12대 1, 언어치료학과 7대 1, 보건행정학과 6대 1을 기록하며 대졸자들이 입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만학도·성인재직자전형에서는 사회복지학과 69대 1, 방사선학과(야간) 21대 1,

물리치료학과(야간) 18대 1, 식품영양학과 17대 1, 농어촌전형에서는 간호학과 10대 1, 임상병리학과(주간)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과학대의 경우 올해도 간호보건계열의 강세와 함께 뷰티디자인과, 헤어디자인과, 축지정보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물리치료과 특성화고전형 1명 모집에 124명이 지원해 12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간호학과 특성화고전형 5명 모집에 185명이 지원해 37대 1, 뷰티디자인과 일반고전형 7명 모집에 83명 지원해 11.9대 1, 헤어디자인과 일반고전형 5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 6.4대 1, 축지정보과 특성화고전형 10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해 5.6대 1, 치위생과 특성화고전형 21명 모집에 69명이 지원해 3.3대 1, 반도체전자과 일반고전형 9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계명문화대의 경우,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학과는 치위생과로 정원내 22명 모집에 25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8대 1을 기록했고, 간호학과 정원내 116명 모집에 1093명이 지원해 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들의 면접심사는 비교과전형은 오는 5일, 그 외 전형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계명문화대는 학생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 장학금 지급 범위를 늘려 간호학과를 제외한 2025학년도 정원내 최종 합격 신입생(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 구간 0~10분위 확정 학생)에게 입학학기 수업료 50%를 감면하고,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및 만학도는 입학학기 100%와 직전학기 성적 2.6이상인 경우 잔여학기 50~100%를 추가 감면한다.

영남이공대 이재용 총장은 "영남이공대만의 일학습병행으로 공학계열 취업률을 높이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학과 신설로 진로 선택의 기회를 확장한 것이 학생들의 마음을 잡은 것 같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학생이 만족하고 취업이 잘 되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보건대 권덕문 입학처장(방사선학과 교수)은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돼 우리 대학의 관심과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며 "특히,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보건의료계열학과들은 변함없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졸자들에게도 학력유턴 기회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우수한 실습 환경을 제공해 제도전을 꿈꾸는 성인 학습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용 기자

“악취 골머리... 서구, 24시간 조사를”

시민연대, 대구시의회 요구 회원 “문제 해결... 용역 필요”



한 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옛날 자료를 토대로 실시했다"며 "평리뉴타운에는 임주민들이 2023년 이후 들어왔으므로 이는 불확실한 근거에 의한 조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새벽 시간대는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구 지역에도 정확한 악취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염색산업단지는 물론 서구 지역 내 기존환경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용기 연대 회원은 "서구는 방전리 위생매립장,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상리동 침출수처리장 등에서도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어지럼증 등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달성군 산업단지 일대 주거지역 4곳에서 벤젠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지점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LH천년나무 1단지과 대구과학관 전문대 주변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주변 △는 공음사무소 공단출장소 주변 등이다.

황태용 기자



‘영주풍기인삼축제’ 9일간 각종 행사

체험프로그램·먹거리·공연 무섭의나무다리축제 병행

<2면에 계속>

국내 최고 인삼 생산지인 영주에서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2024경북영주 풍

기인삼축제가 개최된다.

영주 풍기인삼축제는 매해 인삼채굴 시기에 맞춰 개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심 봤다'를 주제로 풍기인삼의 주요 생산지인 풍기읍 남원천과 인삼문화 팝업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풍기에서 최초로 인삼채를 시작한 주세봉 풍기군수를 기리는 행사 재연을 시작으로 풍년기원제, 인삼대제 등 특별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인삼 먹거리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명성과 인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 단체인사 !



최기문 영천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10월 직원정례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7일 다사체천파크코프장에서 열리는 제12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에 참여해 참가 선수들을 응원한다.

月刊 정치와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서 심 봤다 대한민국 최고 건강 명품 축제 우뚝

2024 영주풍기인삼축제 막을라
대한민국 인삼고장 자존심 걸고
성공신화 이뤄 지역경제 살찌고
풍요 넘치는 부흥의 땅 영주건설
전국 넘어 세계 최고 축제 '승화'

'2024 영주풍기인삼축제'가 5일 화려하게 막을랐다. 가을향기 짙어가는 아주 특별한 축제다. 축제는 오는 13일까지 풍기인삼 주요 생산지인 풍기읍 남원천과 인삼문화팝업공원 일대 풍기읍에서 열린다. 주제는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심 봤다'이다. 풍기에서 처음으로 인삼재배를 시작한 주세봉 풍기군수를 기리는 행사 재연을 시작으로 풍년기원제, 인삼대제 등 특별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인삼 먹거리 등을 선보인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와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 수용 태세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장에서는 마당놀이 텐동어미전 등 지역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공연과 함께 인삼병주(酒) 만들기, 인삼짜기 경연대회, 황금인삼을 찾아라, 인삼인절미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매일 준비된다. 개막식에는 박서진, 경서예지, 황민호-민우 형제, 영지 등이 출연해 흥을 더한다.

환경노래자랑대회, 퓨전국악밴드, 주민자치동아리 및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전국 파워풀 댄스페스티벌, 소백산영주풍기인삼가요제 등 매일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9일에는 '김민지 영양사의 원데이 쿠킹클래스'가 열려 풍기인삼 등을 활용해 새롭게 개발한 차림표를 쿠킹클래스에서 시연한다. 축제 기간 풍기는 물론 영주지역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영주시 일대에서 영주시장기 전국 족구·축구대회, 영주풍기인삼배 테니스대회, 경북도지사기 마라톤대회, 소백힐링 걷기대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펼쳐진다.

영주 문수면 무섬마을에서는 5일 '2024영주 무섬이나마다리축제'가 함께 개최돼 무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전통 혼례, 전통 상여 행렬 재연행사를 볼 수 있다.

풍기인삼은 사교, 한우와 함께 영주지역 대표 주요 소득원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삼을 이용한 가공식품 중심도시로 풍기인삼의 해외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세계적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축제를 통해 풍기인삼 우수성과 효능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인삼 본고장으로서 자존심과 영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한민국 최고 건강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남서 영주시장과의 일문일답

-풍기인삼축제는 어떤 축제인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 축제다. 인삼의 고장으로 알려진 풍기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축제 계기는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시작됐다. 축제의 시작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인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인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첫 축제는 소규모로 시작됐다. 성공축제가 되면서 매년 열기 시작, 점차 규모가 커졌다

-풍기인삼재배 역사는

△풍기 인삼 재배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고려시대부터 인



삼이 자생하던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삼이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풍기 인삼은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유명, 왕실에서도 애용됐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서기 734년(신라 성덕왕 33년) 당나라 현제에게 소백산 산삼 200근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래전부터 소백산에서 산삼이 많이 자생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삼이 아닌 자연 산삼이었다. 이후 풍기군수 주세봉선생에 의해 인삼을 재배하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외국에도 수출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약재로 자리 잡았다

-영주는 언제부터 재배 됐나

△영주는 고려인삼 시배지(始培地·처음 심어 가꾼 곳)다. 영주에서는 1541년 신재 주세봉(1495~1554) 선생의 풍기군수 부임으로 인삼재배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 오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이같은 풍기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인삼축제의 특징은

△집점 와서 보면 안다. 풍기인삼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풍기인삼축제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좋은 품질의 인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삼과 관련한 다채로운 전시, 체험행사가 펼쳐져 해마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특별한 축제를 만든다.

-풍기인삼 명성이 높다

△말하면 뭐 하겠다. 축제를 통해 풍기인삼의 효능을 알리는 것은 물론 풍기인삼의 명성을 오늘날까지 있게 한 역사적 배경을 꾸준히 알렸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한국관광공사 '2024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뽑혀 새로운 인삼 먹거리 개발과 홍보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어떤가

△이번 축제에는 랍스터 급식으로 유명한 김민지 영양사의 특별 인삼메뉴를 선보인다. 김민지 영양사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에서는 요리 시연을 통해 인삼을 이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비법을 공유한다.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

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코레일과 연계한 '반값으로 즐기는 풍기인삼축제' 상품을 코레일 앱 등에서 구매하면 최대 50%의 운임 할인과 영주사랑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풍기인삼 인기 비결은

△영주는 지리적으로 소백산 줄기를 따라 이어진다. 위도 36.5도의 위치, 온대와 한 대의 경계로 하루 15°C 이상 일교차가 나는 소백산 산기슭에서 나는 영주의 농특산물들은 조식이 단단해 빨리 상하지 않고 당도도 뛰어나다. 영주는 예로부터 소백 산록의 풍부한 유기질을 함유한 토질과 고산 분지형의 지형, 높은 일교차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품질 좋은 인삼을 생산해 낸 유서 깊은 고장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풍기인삼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국내의 명성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다.

-풍기인삼 명맥 원인은 뭔가

△풍기인삼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역사성이다. 무엇보다 역사성과 집약된 비법과 현대적인 농법을 접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체험, 관광,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6차 산업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주력한다. 풍기인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삼생산기반을 조성한다. 산업화와 마케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풍기인삼 시험장에서는 유기농 인삼을 생산, 공급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풍기인삼'이 믿고 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인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재배 기술, 가공식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관광객에게 한마디

△축제기간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인삼 가공품 및 풍기인삼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인삼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면 영주 풍기인삼을 놓치지 말고 구입하길 바란다. 풍기인삼축제 기간 5,6일 이틀간 영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무섬마을에서는 무섬의나마다리 축제가 열렸다. 풍기인삼뿐만 아니라 영주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 새달 1-3일까지 영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가 열린다. 영주에서 건강도 충전하고 마음도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풍기인삼축제 승화 계획은

△풍기인삼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판매 위주의 행사라 아니라 풍기인삼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한다. 풍기인삼의 역사와 풍기인삼 재배 농가, 상인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영주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축제를 만든다. 지난해에도 가뭄지만, 올해도 가고 싶은 축제, 해마다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기대되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삼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성공신화를 쓰아올려 지역경제가 웃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부흥의 땅 영주를 건설하고 싶다.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풍기인삼의 명성을 갖겠다는 영주의 목표와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해주시길 바란다.

전성기 기자



<1면에 이어>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와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 수용 태세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장에서는 마당놀이 텐동어미전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공연과 함께 풍기인삼을 더 맛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삼병주(酒) 만들기 >인삼짜기 경연대회 >황금인삼을 찾아라 >인삼인절미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매일 진행된다.

축제 기간 풍기는 물론, 영주지역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영주시 일원에서 영주시장기 전국 족구·축구대회, 영주풍기인삼배 테니스대회, 경북도지사기 마라톤대회, 소백

힐링 걷기대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펼쳐져 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쭉날쭉 예정이다.

축제 개막일인 5일, 문수면 무섬마을에서 '2024영주 무섬의나마다리축제'가 함께 개최되어 무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전통 혼례와 전통 상여 행렬 재연행사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축제를 통해 풍기인삼의 우수성과 효능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인삼의 본고장으로서 자존심과 영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축제를 만들겠다"며 2024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전성기 기자

대구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3

동구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최우수상

동구는 지난 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대구시 주관 '2024년 지방재정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동구는 '꼭꼭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신탁재산 수익채권 압류를 통한 채납 세 징수 사례를 발표해 지방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도 '불법광고물 Zero화'를 추진, '정정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연말에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진출해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경쟁을 하게 됐다.



대구식품(D-푸드), 미국 LA 현지에서 통했다

(특)

대구식품 완판... 수출 상담회도 D-푸드 미국 진출 기대감 높여

대구는 대구 식품의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제51회 LA 한인축제에 참가해 대구식품과 대구 대표 축제인 치맥축제를 홍보하고 지난 1일 미주 지역 바 이어 30개 사가 참가할 수출 상담회도 개최했다. 시가 해외 한인족 최대 축제인 LA 한인축제에

참가한 것은 수출을 통한 대구 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 식품시장에 직접 대구 식품을 선보이고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진출을 열망하는 16개 식품업체가 만든 컴덱스, 한과, 잡채 등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들로 대구 식품 공동 홍보관을 꾸민 결과, 군 위군에 소재한 '일월한과'는 축제 첫날 가져온 제품 1천4백만 원 어치를 완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나머지 15개 업체들도 축제기간 48종의 제품을 모두 판매해 총 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같은 기간, 대구 대표 축제인 치맥축제도 함께 홍보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치맥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5월 상하이 코리아 트레블 페스티벌에 참가해 축제를 홍보한 데 이어 이번 LA 한인축제에서도 시식 행사 등으로 축제를 홍보하여 미국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치맥축제 홍보관을 방문한 LA 거주 조이바티

스타(Joy Batista)씨는 치맥축제에 대해 흥미를 보이며 "2025년 치맥축제를 언제 개최하는지" 묻고 치맥축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내년 치맥축제에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9월 27일(금)에는 흥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정동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식품뿐 아니라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5대 신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구는 이번 성과를 통해 대구시의 수출액

규모 2위인 미국 시장에서 대구식품(D-푸드)의 수출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과감한 지원 정책 추진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식품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다"며, "이번 LA 수출상담회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해외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체험해요!

훈민정음 해례본과 함께 한글의 의미 되새겨

대구간송미술관은 지난달 3일 개관 이후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관 한 달을 맞아,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날 특집 프로그램과 합치적이고 편리한 관람을 위한 혜택을 소개한다.

대구간송미술관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세상 함께 보배 삼아'에는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그에 대한 예시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되고 있다.

미술관에서는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내가 쓰는

ㅎㅁㅈㅇ - 훈민정음 용자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새로운 훈민정음 용자레를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간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미술관을 방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정보 약자의 알 권리를 위해 쉬운 정보(Easy Read)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소통'과 함께 진행한다.

글쓰기 워크숍은 미술관 홈페이지(<http://kansong.org/daegu>) 가입 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은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은 전시에 출품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더욱이 한글날이 전시기간 중 포함되는 일은 더욱 드물다"라며 "훈민정음 해례본의 관람과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시민 참여 파크 오페라 가을밤을 수놓다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와 '2024 달성가족문화축제' 성공적 개최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5일, 사문진 나무터에 배경으로 지역민과 함께 만든 파크 오페라 '사문진 - 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와 '2024 달성가족문화축제'를 열었다.

사문진산실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두 행사는 현장에 1만여 명의 지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120여 명의 출연진들이 가을밤을 오페라로 물들이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공연이었다는 평이다.

또 두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덕에 가족

단위로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낮에는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은 '2024 달성가족문화축제'에 참여하고, 저녁엔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었던 점이 모두 만족시켰다.

올해 처음 선보인 시민 참여형 파크 오페라는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둔 만큼, 성악과를 졸업한 뒤 경력이 단절된 시민부터 취미 활동으로 음악을 접하여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 시민까지도 가정주부에서 달성군의 사업장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 '파크 오페라'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펼치고 자유롭게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행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오페라에 참여한 시민들 중 한 분인 박형은(유가역)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취미인 음악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한 시민 참여형 파크 오페라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달성군의 새로운 대표 콘텐츠가 되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여 달성군을 문화 창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전기화물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파격 추가할인

10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참여업체는 현대자동차 등

대구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전기화물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 엑스포에서 개막하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 Expo 2024, 이하 FIX 2024)'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

전기화물차 지역할인제는 대구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 주고 대구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매시민은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10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대구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전기화물차 지역할인제 참여업체로는 'FIX 2024'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4개 차종)를 비롯한 GS글로벌(2개 차종), 모빌리티네트웍스(1개 차종), 이브이케이엠씨(5개 차종) 총 47사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누리집(<https://www.daegu.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2019년부터 전기화물차 보급을 시작해 2024년 8월까지 누적 6,686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대구에 등록된 전체 화물차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단거리 운행과 공회전 시간이 긴 내연기관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바꾸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북구청, 제2회 서리지감성마켓 & 체험 페스티벌 개최

아이와 어른들의 새로운 힐링공간 탄생

북구청은 오는 12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서 '제2회 서리지 감성마켓 & 체험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북구의 대표 관광지인 서리지를 알리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북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다.

첫 화는 호응에 힘입어 올해 예산을 증액해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 가족 동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서리지의 자연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아이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어른들의 소소한 행복을 충족시키는 힐링마켓, 플라마켓,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이 운영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테마별로아트로드, 상상마당, 잔디마당, 감성마켓으로 구분하여 분필아트, 카이트, 랜덤공작소, 나만의 집만들기, 에어바운스 등 놀이·체험 프로그램이다.

메인 무대에서는 춤추는 트랜스포머, 별문쇼, 가족작가자랑 등을 진행한다.

잔디마당에는 사전예약으로 운영하는 피크닉 및 돛자리를 빈백을 대여해 방문객들에게 화장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힐링하는 시간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준공한 서리골천 산책로인 '서리지 행복하길' 연계 이벤트를 진행해 스탬프 인증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지급한다.

이외 방문객 이동을 위해 경복인재개발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마련해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행과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방문객들



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베광식 북구청장은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계절, 제2회 서리지 감성마켓 & 체험 페스티벌을 통해 도심의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체험하며, 동시에 부모님들도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관광과 (053-665-432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 태극기 나눔 행사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는 지난 2일 통일 전 및 중앙시장, 경주문화관1918 광장 일원에서 태극기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통일전에서 실시된 통일서원제 행사장을 시작으로

로 다가오는 개천절 및 한글날과 연계해 태극기 나눔 행사를 진행해 나라사랑 의미를 더했다. 당일 아침 일찍 현장을 찾은 회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나눔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통일서원제 행사에 참가한 신라공업고등학교,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태극기를 배부했다. 또 중앙시장의 경우 장이 열리는 날을 행사일로 정해 시장을 찾은 시민 및 상인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국기예양을 도왔다.



생활체육 수요 대응...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추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억원 확보해
지상 3층 2027년 조성

경주 외동 제2산단 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5년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7월 공모에 참여해 문체부 현장실

사에서 사업의 필요성, 주민 수혜도, 행정절차 준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남경주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로 2027년까지 조성된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지방비 130억 원 등 총 160억 원이 투입된다.

1·2층은 25m 길이의 6레인 수영장, 영유아 풀, 편의시설이, 3층은 헬스장, 소규모체육관, 사무실 등이 마련된다.

경주시는 내년도 1차 경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외동지역은 그간 시민 간담회에서 부영아파트 입주 등으로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스포츠 센터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시내권을 포함한 총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수영장이 부재한 남경주권역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 지역 주민 및 외동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생활체육 활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체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발굴·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장, 신라문화제 추진 상황 점검

사전 준비 브리핑·질의 응답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제51회 신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강희 시의회 문화도시위원, 오기현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용 한국예총 경주지회장, 박임관 경주문화원장 등의 화백위원 10명과 시민축제운영단 대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문화제 개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오기현 대표의 신라문화제(축제 분야) 추진상황 브리핑,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 대표는 먼저 "관람객 및 구조물 안정상 우려로 올해 개막식 장소를 월정교에서 대릉원으

로 변경함에 따라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화백제전'을 대신해 신라복판타지 패션쇼를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봉황대 법장사 뒤편에 ESG 존을 마련해 친환경 체험 공간과 반려견 동반 구역을 새롭게 준비했으며, 금관총 주변에 푸드트럭존을 신설하고 스마트 QR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주낙영 시장은 추진 상황을 듣고 다시 한번 신라문화제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주 시장은 "올해는 예술제와 축제가 이원화된 지 3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축하하고 내년 성공개최 기원을 담아 어느 해보다 뜻깊은 행사로 구성해 축제의 품격을 올리라"고 말했다.

"신라문화제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며 "주민과 더불어 기업,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시민축제 운영단을 더욱 확대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남만야시장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각기 다른 분위기의 판매 공간과 취식 공간을 연출하는 콘셉트로 축제를 즐기려 온 방문객이 축제장에 오래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지난해 신라문화제 날짜별, 연령별, 시간대별 등의 방문객 빅데이터를 객관적 분석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안전 인력관리 배치, 교통 통제 등에도 적극 활용해 역대 가장 감명 깊고 안전한 신라문화제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신라문화제(축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신라복판타지 패션쇼, 실크로드 페스타, 화랑합창 페스타, 달빛난장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

대릉원 돌담길 車통행 일부 제한

상생마켓 행사 27일 까지
오전 11시~오후 9시 통제

주말이면 인파와 차량이 뒤섞여 혼란을 초래했던 경주 대릉원 돌담길의 차량 통행이 일부 시간 동안 제한된다.

경주시는 5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릉원 돌담길에서 상생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27일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행사 기간 차 없는 거리가 된 돌담길(계림로)

에는 핸드메이드 수공예품, 디자인 제품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거리 공연, 거리 그림 그리기, 전통놀이 등의 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서커스, 비보잉, 마술, 재즈 등 수준 높은 거리예술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이색적인 포토존과 인조 잔디 위에서 자유롭게 앉아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공간이 마련돼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릉원 돌담길에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가을 관광 시즌을 맞아 체류 관광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크기·설치 기준 세분화 추진

필요 서류 제출 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수정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과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은 광고물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세분화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담겼다.

심의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전 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경주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광고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경주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주 만들어요"

반려견 행사 12·13일 개최
동경이 어질리티 공연 예정



경주시가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화랑광장에서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사단법인 동물복지연대 공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경상북도·경주시·경주시의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무대 프로그램 △반려견 놀이터 △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무대 프로그램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펫타켓 OX 퀴즈 명생보감, 기다려 대회, 토코 콘서트,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펼쳐진다.

이 중 퓨리아빠로 유명한 슬리피와 함께하는 반려인들의 공감백서를 비롯해 이용종 교수의 애견 행동교정 및 훈련교육에 대한 토코 콘서트는 반드시 들어볼 만하다.

반려견 놀이터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견 놀이터는 가로 40미터, 세로 25미터로 조성된다. 중·소형견과 대형견으로 구분해 울타리를 만들고 놀이터 내에는 시소, 허들 등 다양한 어질리티 장비를 제공한다.

여기서 국가대표 훈련사가 어질리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동경이 어질리티 공연을 진행한다.

어린이만을 위한 강아지 훈련 및 만지는 방

법, 친해지는 요령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체험 및 이벤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메인인 '댕댕아 산책하자'는 많은 참여자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견과 함께 1.2km를 산책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백팩, 배변봉투 등이 포함된 산책키트와 고급사료가 제공되며, 완주 시 완주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유기동물 예방과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무료 동물등록 및 쿠폰 증정 이벤트를 시행하고 반려견 간식, 사료, 용품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도 펼쳐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경주를 조성해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8명 표창

노인 강령 낭독·유공자 표창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노인의 날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고 이들의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2일이다.

경주시와 경북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모범 어르신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형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장, 구승희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 지역 어르신 및 기관 단체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밸리댄스, 퓨전 음악공연 등의 식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노인 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활쏘기 퍼포먼스,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낙영 시장은 고령임에도 일상 속에서 선행

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어르신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해 온 노인복지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노래자랑에서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경로당 지회별로 뽐내며,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구승희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우리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노인회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청송, 정신건강의 날 행사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일 파천면 청송정원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청송정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우울증·스트레스 등 자카마음건강검진 안내, 정신건강 인식개선 커피차 및 즉석 사진관을 운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을 통해 청송군민들이 마음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청송군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 해외 수출 상담회

포항시는 지난 4일 2030년 농식품 수출 300억 달성을 위한 중동 지역과 북미권 해외바이어를 초청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흥해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상담회는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3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바이어와 14개의 신선농산물 및 농수특산물 가공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포항시의 농식품 산업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지 시장에 맞는 품목별 상품화 방안 협의 및 새로운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와 지역 내 가공업체와의 현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2025년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딸기, 포도, 배추, 시금치, 부추, 쌀 등 신선농산물과 고춧가루, 증류식 소주, 사과즙, 고구마빵, 냉동 물회, 발효 과메기 등의 농수특산품에 대한 수출계약 체결하고, 각 업체별 맞춤형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주요 바이어 중 한 명인 두바이 소재 Young Trading LLC의 David Jang 대표는 "포항 기업들과의 수출 상담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포항의 포도,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었다"며 "포항의 우수한 제품을 수입해 현지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준비 한창

오는 12일부터 2일간 열려
주민 아이디어 적극 반영
지역 특산물 홍보·판촉

다가오는 12일을 시작으로 2일간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 일대에서는 '제3회 수비 능이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경치와 더불어 천연 능이의 향을 선보인다.

가을에 참나무 등 활엽수림 안의 땅 위에서 무리지어 자라나 홀로 자라는 풀과 꽃과 흙의 향기를 품은 향을 가져 향버섯이라고도 불리는 능이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곳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만 채취가 가능한 귀한 버섯으로 버섯 중의 으뜸으로 꼽힌다.

오죽하면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능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능이버섯은 식용 부위 기준으로 100g당 탄수화물 4.5g, 단백질 2.3g, 식이섬유 4.7g 등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과 단백질 분해 성분이 풍부하고 유리 아미노산 23종, 지방산 10종과 미량의 금속 원소가 13종이 들어 있고 유리당, 균당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비타민 B2는 송이버섯에 비해 9배 많으며 에르고스테롤도 풍부하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현대인의 식습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화력을 좋게 해 달인 물을 소화제로도 사용하고 자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 일대에서는 '제3회 수비 능이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연산 능이버섯은 암 예방과 기관지 천식, 감기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수비면은 높은 고도의 산들이 대다수로서 산세는 웅장하며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이 높게 뻗어 있다.

눈으로 산의 능선을 쫓아가다 보면 산봉우리에 걸려있는 별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천연 생태공간에서 능이버섯이 자라날 수 있는 적합한 생장환경이 만들어진다. 토질, 습도, 온도 등이 맞아떨어져야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마 전 내린 가을비는 뜨거웠던 대지를 고온 다습한 기후로 만들어야 생의 버섯이 크기에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만들었다.

수비 능이축제는 능이의 주산지인 수비면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제3회 수비 능이축제'는 충분한 휴식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힐링 축제'로 산과 별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낭만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길 바란다.

육군3사관학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10~11일 군 장비 전시 등
가요제·콘서트 행사 진행

육군3사관학교가 창설 56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대개방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완공된 3사교 신본청을 지역주민과 내빈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또한, 학교발전과 올해 62기 정시 및 63기 예비생도 모집홍보를 위해 힘써 준 학부모 모니터링단, 전국에 위치한 45개 협력대학의 모집홍보위원 그

리고 3사교 기수 동기회 등 70여명을 초청해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양일간 군 장비 및 물자 전시, 3사교 군악대 버스킹 공연, 문화체육활동부 전시 및 체험부스, 영천시 관광부스, 영천호국원 6·25 전쟁 사진전,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10일에는 3사교, 부산대, 울산대의 응원부 공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별빛 가요제 그리고 3사교 그룹사운드와 응원부 공연, 연연인 한요한, 이체연, 오마이걸이 출연하는 생도의 밤 콘서트와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2일차인 11일에는 3사교 창설 56주년을 맞아 시

행사로 육군 2작전사령부 의장대 공연,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 공연, 육군 특전사 고공강하와 육군 항공 축하비행이 진행된다.

이어서 창설 56주년 기념식이 진행되며, 생도들의 뜻을 볼 수 있는 충성의식이 진행된다.

부대개방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신청용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학교장 이용환 소장은 "학교 창설 56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부대개방 행사를 마련했다"며 "육군 최정예장교를 양성하는 3사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울릉, 요가 관련 '울름울름페스타' 개최

야외광장서 요가로 시작
울릉천국아트센터 일일

울릉군은 지역민들과 함께 '매리머 꿈'을 꾸는 시간 '울름울름페스타(요가축제)'가 3~5일까지 울릉천국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울릉군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울름울름페스타

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에메랄드 울릉도를 세계적인 친환경섬으로 재탄생시켜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유명 인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축제는 야외광장에서 오전요가로 막을 열며 3~5일까지 3일간 일출일몰요가, 요가 사진전, 김용식 작가의 요가인을 위한 핸드폰사진 강연, 김선현 교수의 미술치료 강연, 김원근 교수의 '꿈' 강연, 울름주민으로 구성된 독도 오케스트라와

주미란 핸드댄 연주자의 협연, 요가퍼포먼스 등 사진, 미술, 음악 등을 통해 아트힐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진영우 감독의 'Why ulleung?' 강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본 행사를 기획한 들숨날숨문화원 진영우 대표는 "울름울름페스타가 1회성에 그칠 단순한 요가 축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방 정부의 문화체험형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 청년들 만남 '장르만 트레킹' 해단식

경북 주소 든 남녀 30여명
커플 매칭 1호 커플 탄생

영덕군은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남녀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장르만 트레킹' 1기의 해단식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장르만 트레킹'은 영덕 블루로드 등 지역 명소

를 연계한 청년남녀 만남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을 둔 남녀 30여명이 지난 두 달에 걸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기 해단식 행사는 관내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첫날 참가자들은 1:1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라이빗 데이트와 가을밤 낭만 모닥불 버스킹으로 추억을 만들었

으며, 다음날 최종 커플 매칭 시간을 통해 1호 커플이 탄생했다. 커플로 맺어진 남녀에게는 영덕군을 재방문할 시 데이트를 위한 청년창업 식당 이용권이 지급됐다. 장르만 트레킹 2기 프로그램 10월 중 시작돼 한 달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일 저녁과 주말 시간을 활용해 지역탐방 트레킹 등 다양한 데이트와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지능형 CCTV로 재난 사전 대응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울진군은 울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산불 등 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AI 기반의 지능형 분석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 사람이거나 차량 등을 식별하고 위험이나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움직임을 감지해 관제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린다.

군은 관내 주요 산 정상에 설치된 산불 감시용 CCTV(13대)를 울진군 CCTV 관제센터와 통합해 불꽃 및 연기 탐지 솔루션을 적용해 산불 감시를 강화했다.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CCTV 80대에는 사람과 차량을 식별하고, 사람, 싸움 등 이상 행동과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정수 기자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영천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18회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및 별별야매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회 측 추산 약 4000명의 고객이 시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 이번 행사는 영천공설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축하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른 아침부터 5일장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으며, 경품 추첨 행사, 건강관리 부스 등 고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한층 풍성한 행사를 만들었다.

아간에는 '별별야매파티'도 열어 행사장 일대를 친근한 야시장 분위기로 연출하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 안주거리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최기문 영천시장장은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영천공설시장이 앞으로도 방문객에게 사랑받는 경쟁력 있는 전통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청송군 '경북합창제' 개최

청송군은 5일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제35회 경북합창제'를 개최했다.

(사)한국합창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청송군이 후원하는 이번 합창제는 청송 문화원합창단, 청송시니어합창단을 포함한 경북도내 시·군의 21개 합창단이 참여했다.

경북합창제는 백일홍이 만개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며, 오후 1시에 1부 공연, 오후 6시에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 5월 열린 제3회 전국청송정원동요제 대상을 수상한 황지민, 해피멜로디가 출연해 합창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빛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각 합창단의 하나 된 화음은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천 시에는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윤병문 기자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SW인재 양성... 경산 미래산업의 핵심”

‘경산이노베이션DAY’ 개최
청년들 ‘42경산’ 참여 홍보
SW 관련 기업 전문가 특강



김포 감천면, 취약층 후원

김포시 감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감천면 취약계층 28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온열기 지원사업을 했다.

온열기 지원사업은 겨울철 외풍에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욕실 환경개선을 위해 욕실에 둘 수 있도록 방수기능이 있는 온열기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김종화 위원장은 “노후 된 주택은 보일러를 틀어도 욕실까지 따뜻해지지 않고 특히 연탄보일러를 태고 있는 가정은 욕실에 따뜻한 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상진 감천면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과 설치를 해주신 감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면에서도 어려운 관내 주민을 더 살뜰히 살피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성주에 고향 기부금 전달

성주군 금수강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진행했던 구미출신의 김성찬센터장이 고향사랑기부금 30만원을 기탁했다.

웰니스 아로마센터장인 김성찬 센터장은 매주 화, 목요일 아로마 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향기 치료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났어도 아름다운 금수강산면과 기간 동안 늘 따뜻하게 대해준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해 기부를 마음먹었다고 한다.

8월 1일부터 새로 태어난 금수강산면의 시작을 축하하고 더 큰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사랑나눔을 펼치게 됐다”고 한다.

향기를 전하는 아로마테라피 수업은 센터장의 열정적이면서 어린 신들의 눈높이에서 수업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기도 하다. 구미지역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센터장은 일 열정만큼이나 이웃사랑 나눔도 빛났다.

황희성 금수강산면장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인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김성찬센터장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경산시는 4일 대구대학교 성산홀 스카이라운지에서 ‘경산이노베이션DAY’를 개최했다.

개발자는 현직 게임 개발자의 시각에서 본 SW 분야의 최신 동향과 취업 전략, SW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커리어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실제 SW 개발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전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대구대학교 창과

도서관에 위치한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캠퍼스를 투어하며 교육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SW 비전공자이지만 이번 보조강좌를 통해 코딩을 배우고, SW 개발에 관심이 생겨 42경산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업 현장과 미래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경산시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청년 인재들이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진취적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칠곡군 제10기 아이디어벤처스 최종보고회

직원들 발굴 시책 공유
올해 9개팀 36명 참여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제10기 아이디어벤처스 최종보고회를 통해 직원들이 발굴한 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이디어벤처스는 2015년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군정시책개발단으로 시작해 그 동안 182명의 직원들이 185건의 시책을 발굴했다.

올해에는 9개 팀, 36명이 참여해 지난 3월 팀을

구성해 7개월간 걸쳐 팀별 토의와 벤치마킹, 전문가자문을 통해 총 9개의 시책을 발굴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칠곡군 AI DRT라는 주제로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인 칠곡군 럭비콜버스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이 많은 곳에 칠곡군 홍보판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안과 낙동강변에서 야간축제인 칠곡 LUCK 페스티벌을 개최하자는 안이 각각 우수로 선정됐다.

시책 평가에는 김재욱 칠곡군수,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과 경북연구원 임규세 사업지원본부장

등 8명이 참여해 시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앞으로 칠곡군에 꼭 필요한 시책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발굴된 시책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2023년 시책개발 최우수팀이 제안한 분도푸드소시지와 칠곡 허니 맥주를 결합한 소비페스티벌은 2024년 9월 칠곡 꿀맥페스타로 추진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아이디어벤처스가 발굴한 각종 시책들이 시의적절하게 군정에 잘 접목되어 새로운 칠곡시대로의 발판 마련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참여

투자 유치 · 방산 사업 홍보
국내외 365개 업체 참여

구미시는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KADEX 2024(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했다. KADEX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K-방산 수출을 위한 방산 플랫폼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구미시를 대표해 김팔곤 첨단산업국장은 구미시기업공동관을 방문해 대성정밀㈜, 세영정보통신㈜, 구미텍, ㈜나노컴퍼니, ㈜유에이엠테크, ㈜열방, ㈜성남CNC 등 구미시 대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투자유치 타깃 방산 중견기업 부스를 찾아 구미 지역의 투자 유치와 경



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구미 방산 기업협의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청 등 30여 명의 산·관·연 관계자들이 전시회에 참석해 방산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구미 방산 산업 발전 전략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구미시 투자유치 설명

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미시의 투자환경과 기업 지원 시책,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을 소개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는 6일까지 기업 공동관 운영과 투자유치 설명회를 이어 갔다.

김팔곤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K-방산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구미가 K-방산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ADEX 2024는 6일까지 계룡대에서 열고, 국내외 365개 방산업체가 1,432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기동, 화력, 방호 등 국방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 전시하며, 계룡군 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도 동시에 진행됐다.

송명주 기자

김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영호진미’ 선정

2019년 ‘우수품종상’ 수상
남부지역 중심 재배지 확산

김천시는 2024년부터 새로운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으로 ‘영호진미’를 선정했다.

2021년~2023년에 걸쳐 시범 재배를 가진 ‘영호진미’는 2009년에 육성된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최고품질 벼이며, 2019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한 품종이다. 특히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영호진미’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지속해 늘고 있으며, 경북 내 타시군에서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서의 선정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영호진미’는 중만생종 품종으로 기존 수매품종인 ‘일품’보다 출수가 일주일가량 늦은 편이다.

숙기가 늦기 때문에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8~9월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이삭이 낫 후 50~55일 전후가 쌀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 적기지만, 올해 8~9월의 기온이 아주 높아 적산온도에 빨리 도달해, 출수 후 50일쯤인 10월 11일부터 수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행정 협력 공식절차 대응
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촉

고령군은 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군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원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고령군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

아가 남북경제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순 대대로 필요한 곳에 고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는 고령역 유치 당 위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협력해 유치를 위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군은 달빛철도 고령역 유치를 통해 4대 산업물류 SOC의 연결거점을 마련하고 경북-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 도약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와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배영백 기자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영주 애플리아, 식품 후원

㈜애플리아 우지하 대표는 4일 영주시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오렌지과의 신제품 과일 황금향 200박스를 전달했다. 우지하 대표는 2022년도부터 장학금 기탁 및 제철 과일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영주12호 아너소 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이번 나눔에 대해서는 “아동들에게 제철을 맞아 달고 영양가 있는 과일을 기부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황금향을 전달 받은 아동이 00(10세) 양은 “맛있는 과일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금주 영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앞장 서고 있는 우지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받은 과일은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의성 블로그기자단 팸투어

의성군은 지난 4일 제4기 블로그 기자단 가을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는 의성군의 가을 철 관광명소를 알리고 축제 및 문화 행사를 취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팸투어에서 기자단은 제7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의성 마늘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들을 취재했다.

의성 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의성의 매력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성군 블로그 기자단은 그동안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곳곳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의성군을 널리 홍보해 왔다.

문화제, 관광명소, 계절별 행사 등 지역의 다채로운 모습을 키워드를 통해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의성군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의성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食산업 새 지평

지역 특산물 탈출 접목 특징
더본존 안동시민 주도 운영
합리적 가격 많은 인파 몰려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탈춤의 스토리를 소재로 한 음식산업으로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축제는, 옛새 동안 88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공연단과 착한 가격을 내세운 탈춤 축제 음식이다.

이런 색다른 시도들로 현재까지 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 첫선을 보이는 음식산업이 눈에 확 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활용하면서 탈춤의 스토리를 음식 콘텐츠로 만들어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축제음식산업이 관광객 모객에 일조하는 시너지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이 축제장을 찾게 만드는 전략적 요소가 된 셈이다.

축제장 음식문화 변화의 첫 시작에는, 축제를 준비하는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과 ㈜더본존이(대표 백종원)가 머리를 맞댔다.

컨설팅을 통해 탈춤 축제만의 음식을 개발하고,

합리적이고 저렴한 먹거리 가격으로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부담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들테면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백정이 관객에게 파는 염통을 스토리텔링해 염통꼬치라는 축제 먹거리로 탄생시켰다. 또 안동특산물로 유명한 안동간고등어를 이용한 고등어 김밥 부스에는 기다리는 줄이 50m가 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축제장에는 더본존 부스, 야간포차, 스낵바, 푸드트럭 등 60여 개 음식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축제를 하면 외부인이 다 벌어들인다는 틀을 깨고자, 36개 더본존(백종원) 부스 가운데 4개 부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안동 시민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음식판의 ‘지도’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

축제가 끝나더라도 더본존에서 운영했던 레시

피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제는 문화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관광과 음식 등 모두를 아울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안동시의 철학을 담았다”라며 “문화산업, 관광산업, 음식산업이 융합된 축제의 모델을 만들어 앞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제4회 고치령 문화제’ 영주 고치령서 개최

제례 봉행 통해 콘텐츠 개발 영주시와 영월군 특별 공연

고치령은 역사적으로 단종에서의 슬픔을 간직한 한(恨)이 서려 있는 고갯길이다.

사육신과 함께 단종의 복위운동에 연루돼 고치령 아래 순흥으로 유배된 금성대군이 조카인 단종이 보고 싶어 고치령을 넘어 영월 청룡포에 몰래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번 행사는 영주문화원과 영월문화원이 단종과 금성대군의 영정을 모신 고치령 산령각에서 두 분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례 봉행을 통해 새



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및 후세에 종의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와 영월군은 격년으로 단종대왕과 금성대군의 신위를 바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단종대왕 신위를 모실 초헌관에는 이재훈 영주시장, 아현관은 김병기 영주

시의회의장, 종헌관은 김기진 영주문화원장이 맡았고, 금성대군 신위를 모실 초헌관에 이관우 영월부군수, 아현관은 임영화 영월군의회 의원, 종헌관은 고병순 청정서원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단종대왕과 금성대군을 위한 제례봉행 뿐만 아니라, 서낭거리 굿, 민요, 무용 등 양시군 문화원의 다양한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재훈 영주시장은 “단종과 금성대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두 지역이 앞으로도 활발한 문화 및 경제 교류를 통해 더욱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며, “양시군 문화원이 시대에 걸맞은 문화기관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성기 기자

제28회 의성 군민의 날 기념식

의성군은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하여 10월 5일 종합운동장에서 제28회 의성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의성 군민의 날이 10월 9일에서 10월 5일로 변경된 첫해라는 점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날이 되었다.

기념식은 △이화선 작가의 캘리그래피 식전공연 △군민상 시상 △군민헌장 낭독 △군민의 날 기념사·축사 △김영철의 토크쇼 △2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성 군민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군민상은 지역 발전의 숨은 주역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정재우, 문화체육 부문에 김지영, 산업경제 부문에 황봉수, 봉사효행 부문에 이인혜씨가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이번 군민의 날은 10월 5일로 변경된 후 첫 기념식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라며,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계속 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기존 군민의 날이 10월 9일이 한글날과 같은 날로 상징성과 의미가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군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를 통해 의성군의 유일한 국보인 의성탈리리 오층석탑 등의 의미를 담아 10월 5일로 변경했다.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열려

문경시사격연맹 주관 단체 클럽대항전 등

문경시는 지난 6일 문경관광사격장에서 2024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레이사격대회를 개최했다.

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약 200여 명이 참가해 단체 클럽대항전과 아메리칸드립 남녀 개인전으

로 나눠 1위부터 3위까지 시상하며 특히 최고령 참가자에게는 특별상도 수여됐다.

클레이사격(Clay Target Shooting)은 지름 11cm, 두께 25mm, 무게 100g의 시속 70~80km로 날아오는 원반(피전)을 공중에 방출해 산탄을 쏘아 맞추는 경기로 장전할 때의 긴장감, 총소리와 함께 산탄이 부서지는 오렌지색 접시 그리고 탄피를 제거할 때의 경쾌한 소리가 클레이사격의 묘미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문경시를 방문해 주신 전국 클레이사격 동호인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클레이사격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 및 클레이사격 저변확대를 기대한다”며 “즐겁고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시고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는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사과축제가 개최되오니, 아름다운 관광지도 구경하시고 문경의 맛과 멋을 느끼시며 좋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성황리 개최

지난 3일 봉화군새마을회 회원간 화합 분위기 조성

봉화군새마을회는 지난 3일 봉화군민회관에서 ‘2024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송이축제 기간에 개최되는 수련대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기 증진과 회원 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 행사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새마을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5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된 ‘봉화군청년새마을연대(회장 박옥원)’발대식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도자 표창, 지도자 단합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최기영 회장은 “오늘 행사가 회원 간의 화합과 봉사정신 재충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항상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군정에 적극 협력해주시는 새마을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나눔과 봉사의 새마을정신으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상주자전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막

세계 자전거 · 모자 교구 개발 2025년 9월 2일까지 전시

상주자전거박물관은 2024년 특별기획전 ‘세상의 자전거와 모자 전(展)’의 개막식이 2일 상주자전거박물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의장, 김홍배 상주문화원장,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안영주 경북교육청상주도서관장, 김명희 상주향교 전교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의 특별기획전은 세계 최초 자전거인 셀러리페에서 현대 자전거까지 자전거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각국 모자를 살펴볼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로 자전거와 모자, 그림 등 60여 점의 전시됐다.

2024년 10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5년 9

월 2일까지 상주자전거박물관 기획전실에서 개최되며 전시내용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클래식 자전거를 때 그들이 쓴 모자’ 제2부 ‘자전거 배울 때 사람들이 쓴 모자’ 제3부 ‘자전거 대회가 열릴 때 그들이 쓰고 나갔던 모자’ 제4부 ‘자전거타는 이들의 안전장치 헬멧’이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제1종 자전거전문박물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특별기획전 개최, 문화학교 운영, 학술대회 개최 등 전시 및 교육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 박물관 고유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전과 연계해 세계 자전거와 모자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구를 개발해 전시 기간에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주자전거박물관장 윤호필은 “박물관 고유기능인 유물 수집, 전시, 교육 등에 박차를 가해 전국 유일 제1종 자전거 전문 박물관인 상주자전거박물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月刊 정치와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